

아크릴 섬유산업

- 아크릴섬유 산업의 전망-

섬유산업은 생산, 수출, 고용 등 국가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국내산업 가운데 세계적 수준에 올라선 산업중의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크릴섬유산업 역시 국제적 수준의 위치에 있지만 세계 주요시장에서는 경쟁력면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지난 1987년까지 섬유는 국내 제1위의 수출품목이었으나 1988년 이후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인력 구득난으로 우리나라 섬유제품류의 국제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됨으로써 중저가품 시장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후발 개도국에 우리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고, 고가품 시장에서는 급속한 기술개발과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 패션 디자인, 제품 기획 등 기술의 혁신, 생산 공정의 효율화 및 무인자동화 등으로 선진국의 기술 수준과 생산효율성을 따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의 저변은 우리 나라 섬유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GNP의 1/4, 고용인구의 1/4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너무 노동 생산성과 중저가 제품의 대량생산에만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이고 저위 기술의 사양화되어가는 산업으로 인식되게 된 것에 기인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섬유산업이 국내 여타 산업분야에 비해 가장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라는 적극적 사고에 의한 산업구조 조정을 통하여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아크릴섬유 수요량은 1990년도의 230만톤에서 연평균 2.2%의 성장으로 1995년도에는 255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로 서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패턴의 천연소재 지향 등 섬유소재의 고급화와 후발국의 섬유산업화가 급속히 전개됨에 따라 선진국에서의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으나, 동유럽, 중국 등 개발 도상국의 생산량은 증가되는 추세로서 세계 아크릴 섬유의 생산량은 수요 추세에 맞추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AN 모노머의 국제시세는 현재 바닥세인 톤당 600달러 전후로 거래되고 있으나 AN 모노머 시세가 바닥에서 반등의 추세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한 국제적으로도 아크릴 스테이플의 수요 공급은 타이트한 실정이다. 수년간의 아크릴시장의 침체, 세계적인 공급 초과 현상, 후발국의 생산 증가 등의 국제적 상황과 내수 시장에서의 소재 고급화 내지 천연섬유 선호로 인한 인조섬유의 수요 감소 등 국내적 상황으로 인하여 아크릴섬유의 수요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 자연히 방적시설의 축소로 이어져서 현재 국내 소모방 시설은 약 100만 추정도로서 점차 시설을 축소하고 있고, 그 대신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 후발국으로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나마 있는 수요도 이러한 시설 감축으로 애로가 예상되며 노동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생산은 더 취약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채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산성이 악화되는 부문 즉 합사, 세번수물 등의 생산이 후퇴할 것이고 중소기업체는 일반 아크릴섬유 가공물의 생산도 기피하게 되고 혼방사 등 특수 기능이 부여된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만 생산코자 할 것이다. 그리고 장식사(fancy yarn) 보다 노동집약적인 품목도 국내 생산이 줄어들고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일반 아크릴 섬유의 수입가격은 1991년 말까지 파운드 당 약 1.40달러 선이었는데 현재 1.50달러 정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수입량이 증가할수록 업체간 수입마찰로 수입 가격이 상승될 것이 예측된다. 그러나 수입사의 품질이 아직 국내 생산품보다 저급이지만 방적기의 대중설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동남아시아 및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일, 태광, 유성 등의 해외 진출 공장에서 생산되는 방적사도 국내로 유입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아크릴섬유 산업에 있어서도 노동 생산성에 의존하는 성장성은 한계가 있으므로 값 싼 제품의 해외공장 이전,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과 변화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영 다양화로 현재 아크릴섬유 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 우위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업 스트림과 다운 스트림 유기적 협조 체제를 원활히 함으로써 코스트 다운 및 제품의 차별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물량 위주의 수출은 이미 동

남아 등으로 이전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내 산업과 이전 산업간의 긴밀한 상호보완적 관계가 유지되게끔 해외 투자에 세심한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아크릴섬유 산업은 고도화를 추진하는 전환기로써 궁극적으로 수요의 다양화, 개성화, 고급화라는 급속한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체제와 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크릴섬유 산업도 기존의 의류용 수요 이외에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의류용, 산업용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할 것이다.